

# “東山の 소금, 仁川の 명품, 世界の 리더가 되자.”



**예**로부터 소금은 염화나트륨(NaCl)이 주성분인 짠맛이 나는 흰 결정체로 동물체에게는 생리적으로 필수적이고, 특히 인류에게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였으므로 소금 생산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보다 소금장수”라는 말이 있고, 또 이유 없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소금장수 사위 보았나?”라는 말이 있어

소금의 중요성을 표현했으며, 무역의 핵심적인 품목이었고

황금과 맞먹는 결재의 수단이었으며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인천을 2020년 세계 인류 10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올해를 “세계 일류 명품도시”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국제도시, 환경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고품격 도시개발, 시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교통, 환경,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시민 의식 등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2009년 인천 세계 도시 엑스포,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도시 브랜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시민인 우리 “동산인”들도 인천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인천시 발전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 현상이 초래되고 WTO협정의 발효로 경제적 의미로서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나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 간, 기업 간, 계층 간 무한경쟁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 “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자 ”

이런 시대적 필요에 따라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학교 캐치프레이즈를 “東山の 소금, 仁川の 명품, 世界の 리더가 되자”로 정하여 동산에서 열심히 배워 고향인 인천을 사랑하며 세계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 사학으로 자리 매김하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산인 여러분!!

이런 목표 아래, 열심히 배워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거듭 태어나 모교인 동산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끌어갈 훌륭한 “동산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